

목포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12년 늘린다

344억 투입 순환이용 정비사업 착수...2021년말 완공 가연성 폐기물 처리 위해 소각 시설 추가 신설도 검토

목포 광역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목포시는 "대양동 위생매립장의 매립율이 91%를 넘어서 신규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워 추가 매립용량 확보와 매립연한 연장을 위한 순환이용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순환이용 정비 사업은 현재 위생매립장에 매립된 18만㎡ 가운데 5만㎡에 달하는 면적을 굴착한 뒤 굴착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토사 등으로 선별해 처리하는 게 골자다.

폐기물 굴착 용량은 51만6000㎡, 폐기물 선별 용량은 64만500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49만6650㎡(14만8995t), 불연성 폐기물은 7740㎡(7585t)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매립될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토사는 14만610㎡(17만1544t)로 예상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매립 폐기물을 굴착·선

별한 이후 가연성 폐기물은 압축해 포장한 후 적치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재 매립하며 토사는 복토재로 활용된다.

특히 시는 굴착과정에서 발생할 악취 제거를 위해 사전 안정화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 안정화 작업은 여러 공법 중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는 매립 폐기물 층에 공기를 주입해 관로를 이용 송풍과 가스를 흡입, 자동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혐기성 환경을 호기성으로 바꾸어 굴착 시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공법이다.

또 시는 폐기물 선별 시 발생할 악취·비산먼지·소음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돔(Dome)구조물과 함께 탈취제 살포시설을 설치하고, 방진막, 선별 시설 밀폐, 집진장치 등도 설계에 반영했다.

이러 시는 전체 폐기물 양의 77%를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전 처리시설을 연장 운영하고 1일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추



목포시가 대양동 위생매립장의 매립율이 91%를 넘어서 추가 매립용량 확보와 매립연한 연장을 위해 총 사업비 344억원을 투입해 순환이용 정비 사업을 펼친다. 위생매립장 전경. <목포시 제공>

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각시설 신설은 초기 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 등이 필요하지만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전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른 공사비는 사전약취 제거 31억 5700만원, 폐기물 굴착 32억원, 가연성 폐기물 압축 66억원, 선별 공사 99억원 등 총

344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매립연한이 12년 늘어나고 소각장 설치 시 60년까지 늘어나 추가 매립지 확보 걱정 없이 안정적인 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10일부터 18일까지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김종식 시장이 "(해상)케이블카+(근대)문화유산+도시재생+맛의 도시"를 자원화·상품화·브랜드화 시켜 철저히 목포를 팔아먹는 데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해상)케이블카+(근대)문화유산+도시재생+맛의 도시 민선 7기 목포시정 화두는 '케·문·도·맛'

김종식 시장 "브랜드화 박차"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이 목포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로 '(해상)케이블카+(근대)문화유산+도시재생+맛의 도시'를 내걸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김 시장은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상)케이블카+(근대)문화유산+도시재생+맛의 도시"를 자원화·상품화·브랜드화 시켜 철저히 목포를 팔아먹는 데 승부를 걸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00일 동안 목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줄곧 해왔다"고 전제한 뒤 "근대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원도심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목포만의 자산"이라며 "특히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목포만의 특장적인 사업으로 특화시켜 전국 제일가는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맛의 수도하면 전라도를 떠올리듯 전라도 맛의 원조는 목포가 아니겠느냐"며 "꽃게·새발낙지·흥어·민어 등 목포 9미의 특성을 살려

여수·순천으로 집중된 관광 축을 서부권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또 김 시장은 "그동안 목포시는 '예향 목포' 등 슬로건은 있었지만 목포의 정체성을 담아낸 슬로건이 없었다. 최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남만항구 목포'를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결정했다"며 "'남만항구 목포'라는 상표를 붙여 '케·문·도·맛'을 제대로 팔아먹자"고 어필했다.

특히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기치로 내건 그는 "H자형 한만도 신경제지대의 한 축인 한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 바로 목포이고, 이와 관련해 '국도 1호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8월 8일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을 목포에서 개최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목포 선언'이 발표될 수 있도록 올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김 시장은 "목포의 옛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고 새롭게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 시내버스 적자 노선 공공형 버스 투입

국비·시비 6억 투입 내년부터 3·7번 시범운영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키로

목포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3번과 7번 노선에 '공공형 버스'를 투입한다.

목포시는 14일 "시내버스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적자 노선에 공공형 버스를 투입, 특히 적자가 심한 3번과 7번 노선에 대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은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는 지방의 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노선버스 체계 효율화와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목포시 등 78개 도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국비 3억과 시비 3억 등 6억원을 투입해 우선 3번과 7번 노선에 대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목포 시내버스는 당초 25개 노선에 168대가 운행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재 21개 노선에 147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13번, 30번, 60번 등 3개 노선만 흑자고 나머지 노선은 모두 적자다.

앞서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은 "매년 목포시가 적자노선 재정 지원금으로 민간

버스회사에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서비스 개선에는 미흡해 획기적인 버스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흑자노선은 현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적자노선은 시에서 직접하는 방안을 시민·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적자구조가 심각한 이들 지선 노선을 직접(공영제)할 경우 차고지 조성·임대료 등 15억, 1일 2교대 추가 채용 116명 인건비 46억, 재직 운전원 321명 임금 상승 22억 등 총 8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 인건비 상승 등 정부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이와는 별개로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제를 도입하고 수요가 없는 시간대에는 탄력배차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

전남 청소년 열정 한마당 '드림 콘테스트' 성황리 열려



대상에 댄스 부문 '리미트' 팀

전남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겨루는 제4회 '드림하이 콘테스트'가 지난 13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됐다.

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지부장 박영길)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에는 전남 지역 중·고교생 70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1개 팀이 이날 경연을 펼쳤다.

댄스 부문에 참가한 '리미트' 팀(사진)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 힙합을 선보인 '18FW' 팀과 팝 부문 박신영 학생이 금상을, 밴드 부문의 '레드스카이', 보컬 부문 최원서, 댄스부문 '오리온' 팀이 각각 특별상을 받았다.

박영길 지부장은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는 전남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수상 팀에게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버스킹 공연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해수청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 호응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진)이 운영하는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사진)의 참가자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 해수청에 따르면 청소년 해양체험프로그램 참가자는 2017년 1500명(20개 학교)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3100명(35개 학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요트를 비롯한 카

누-카와 승선 체험, 해양환경보호 교육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간식부터 차량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체험지원과 지속적인 홍보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등대·조선소 견학, 요트·카누 승선체험,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실 등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본 투시로는 고가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호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수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